



KOREAN A1 – HIGHER LEVEL – PAPER 1
CORÉEN A1 – NIVEAU SUPÉRIEUR – ÉPREUVE 1
COREANO A1 – NIVEL SUPERIOR – PRUEBA 1

Thursday 17 May 2001 (afternoon)

Jeudi 17 mai 2001 (après-midi)

Jueves 17 de mayo de 2001 (tarde)

2 hours / 2 heures / 2 horas

INSTRUCTIONS TO CANDIDATES

-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.
-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.

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

- Ne pas ouvrir cette épreuve avant d'y être autorisé.
- Rédiger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.

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

-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.
-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.

다음 (a)와 (b) 중 하나를 택해 논평하라.

- 1(a) 지난 가을 서울에 갔을 때, 어떤 소간¹⁾으로 신촌 이화 대학을 찾아가 본 일이 있다.
- 그 부근은 내가 연전(延專)에 다닐 때 많이 걸은 곳이지만, 근 30년 전 일이라 당시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래야 볼 수 없을 만큼이나 변했고, 다만 이대(梨大) 앞
- 5 기차 터널이 그때 그 터널이거니 하고 겨우 짐작이 갈 뿐이었다. 물론, 그때는 이대도 거기에 서지 않았고, 아현동을 넘어와서는 집 한 채 없는 산골짜기였다.
- 마침 이대를 찾아간 때는 오후 네 시경의 하교 시간이었어서, 버스를 내려 교문에 이르니, 갓은 복색을 한, 이제 한창 청춘이 꽃피는 젊은이들이 책이며 가방들을 들고, 제각기 재잘대며, 쏟아져 나오는 판이었다. 이 술한 젊은 여인들! 모두 알맹이가 확
- 10 확 충실하여 있는 젊음의 향취와 빛깔! 이제 피어나는 젊은 여인이란 이렇게도 아름다운 것인가? 더구나 그들의 어딘지 지식에 충족스런 듯한 모습과 빛나는 검은 눈매들을 볼 때, 흠사 백화 요란(百花燎亂)한 꽃동산에나 들어온 것과 같은 황홀함에 발을 멈추고는 못내 감탄하였다.
- 그러나 다음 순간, 내 자신이 말 못할 서글픔 속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
- 15 없었다. 그것은 이미 내가 그 꽃 같은 청춘에는 참렬(參列) 할 수 없는, 이제야 선망(羨望)도 미칠 길 없는 포기된 자신을 다시 고쳐 보는 허무감에서 오는 것이었다.
- 구내(構內)를 들어서니, 자욱한 수풀에 에워 있는 정결한 건물들 — 철따라 우짖는 새 울음 소리도 바람 소리도 창으로 들려오리라. 이렇게 고요한 한적(閑寂) 속에서,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그 청춘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? 그러나 나는 이 행복
- 20 한 전당에서도 이미 쫓겨나지 않았는가?
- 돌아보아 내게도 그러한 황홀스런 청춘이 있었으리라, 30년 전 — 그러나 반드시 있었을 것임에는 틀림없건만 아예 없던 것만 같다. 너무나도 소홀히 써 버린 그 회한(悔恨)이 또한 가만히 가슴을 헤집고 드는 것이었다.
- 그러한 입맛 쓴 회한과 허무감을 느끼며 돌아나오려니, 문전 가까이 이미 낙엽진
- 25 높다란 한목(寒木) 위에 펼쳐 있는 푸른 하늘 — 그 하늘이 마음 깊이 스며드는 것이었다. 그리고는, 거기에 무한한 안심과 위자(慰藉)가 있는 것만 같았다.
- 그리고는, 문득 이 아래를 무수히 지나다닐 그 젊은이들도, 나와 같이 저 하늘의 푸름에 마음이 끌릴 것인가고 생각이 미치는 것이었다. 아니리라 — 아니리라고 생각되는 것이었다. 그네들 청춘은 자신들 안에 너무나도 많은 고운 것들로 충족되어
- 30 있기 때문에, 미처 외부엔 눈이 팔릴 겨를이 없지 않겠는가?
- 파아란 하늘이라든가, 무한이라든가, 종교 같은 것에 마음이 끌리고 마음에 스며들게 되는 것은 이미 자신에게서 자신을 잃은 인생, 오후의 석양에 이르른 그때가 아니겠는가?

쫓겨난 아담 (1971) 유치환

1(b)

쉽게 씌어진 시(詩)

윤 동 주

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

*육첩방(六疊房)은 남의 나라.

시인이란 슬픈 천명(天命)인 줄 알면서도

한 줄 시를 적어 볼까,

5 멈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

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

대학노트를 끼고

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.

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

10 하나, 둘, 죄다 잃어버리고

나는 무얼 바라

나는 다만, 홀로 침전(沈澱)하는 것일까?

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

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

15 부끄러운 일이다.

육첩방(六疊房)은 남의 나라

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.

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.

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.

20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

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.

〈1942〉

*육첩방 : 다다미 여섯 장을 칸 일본식 방